

## 유정아 교수의 '말하기' 수업 -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말하기 수업은 2004년 2학기부터 기초교육원에 개설된 수업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수업은 학우들 사이에 최고 인기 강좌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 비결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말하기'라고 하는 수업 이름만 듣고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업시간에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수업을 상상해 봤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하기 수업의 영문 이름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말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말을 통한 소통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도 빠지 않고 누구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말하기가 늘 편안하고 흡족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말하기 수업의 목적입니다.

### 첫 번째 배움: 자기 자신과의 소통

말하기 수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자기 안에서의 자아를 알고 소통할 수 있어야 타인과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수업시간에 내가 과연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보고 발표해 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소통과 더불어, 말할 때 긴장과 불안 증상, 타인에 대한 관심과 경청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말하기의 1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기의 긴장과 불안 증상을 수업시간에 서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시간부터 말하기에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 내게 됩니다.



### 두 번째 배움: 발성과 언어 훈련

다음 2단계는 바른 발성과 언어훈련입니다. 혹시 61동 1층을 지나가시다 우연히 “아~”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바로 말하기 수업에서 나오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기초교육원에서 성악수업을 개설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밝게 하여 흥분시키는 것이 발성수업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하지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언어훈련은 뉴스읽기를 통해 흔히 발음, 강세, 억양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아나운서가 되어 “서울대뉴스 000입니다”로 시작하는 실습을 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스의 대본을 보고 읽으며 발성과 발음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수업이었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이셨던 유정아 선생님께서 직접 지적해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틀리는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 세 번째 배움: 실전 훈련 및 자기 비평

3단계는 실전훈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3분 자기소개, 정보 스피치, 설득 스피치를 매주 하나씩 해보는, 본격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사람만이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피치가 끝나면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 논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흡한 부분뿐 아니라 잘된 부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할 때의 몸동작이나 스피치의 내용, 혹은 “오늘은 안경을 안 끼시고 나오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와 같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수강생들끼리 비평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최종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비평을 하면 기분이 상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말하기 수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평을 받고도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만큼 수업분위기도 좋지만 이미 수강생 분들이 상대방에게 상처주지 않고 말하는 법을 터득하신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말하기 수업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에 각자의 말하는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e-class 수업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매 시간마다 수업 조교님께서 수강생 한명 한명의 발표를 카메라에 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청중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말하기에 부족한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고 여기 나오는 사람이 내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깜짝 놀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매주 올라오는 동영상상을 보면 처음 봤을 때처럼 기겁을 하진 않지만 아직도 안 좋은 버릇들을 볼 때면 많이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네 번째 배움: 토론과 토의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토론과 토의입니다. 토론은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직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각 조별로 팀을 이루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주장해 나가야 하므로 지금까지 없었던 팀워크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다음시간에 그것에 대한 실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듣는 수업은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주로 듣는 것에 그쳤지만 말하기 수업은 오히려 학생이 주가 되어 말을 하고 선생님

께서는 그것에 지도를 해주십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온 대로는 1, 2 교시는 실습으로 3교시에는 말하기 이론 수업이지만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다보면 모든 분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 3시간의 수업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수업시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강의를 비디오카메라로 찍으셔서 수업 커뮤니티에 동영상 파일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 실습 위주의 평가 방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성적이겠죠? 말하기 수업의 성적은 출석 10%, 스피치(자기소개, 정보, 설득) 40%, 토론 30%, 기말고사 20% 이렇게 매겨집니다. 출석과 기말고사를 제외하면 70%가 실습이고 모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평가를 선생님께서 혼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절반만 평가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수강생들이 매긴 점수들을 합산하여 점수가 매겨집니다. 수강생들끼리는 서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그래도 수강생 분들끼리는 친하게 지내야 좋은 점수를 딸 수 있겠죠?) 사실 수강생분들 모두 열심히 하시고 말을 잘하셔서 막상 점수를 매기고 나면 감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잘하는 데 학점 따기가 어려운 건 아닐까요? 다행히 말하기 수업은 절대평가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최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조금은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 화기애애한 수업 분위기

말하기 수업은 30명이 정원입니다. 인원이 적은 만큼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서 누구라도 손을 들어 발표할 수 있고 수강생이 한명씩 돌아가며 말하기 실습도 가능합니다. 인원이 작은 데다 매 시간마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제는 수강생들끼리 하나의 동아리에 소속된 것처럼 친해졌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전달스피치, 설득스피치를 듣다보면 특별히 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수업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쉬워 저희 강좌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끼리 모여서 매번 밥모임을 하고 있고 종강 후에는 수강생들끼리 엠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쉽지 않은, 그렇지만 많은 도움을 주는 수업

저는 말하기 수업이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배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생각하고 써보고 미리 연습해보고 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매시간 수업시간이 여러 사람 앞에 나가 말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큼니다. 저 같은 경우 말하기 수업이 있는 전날부터 긴장되기 시작해서 발표직전에는 심장이 마구 뛰고 초조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런 증상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발표 전 긴장을 조금은 즐

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오늘 한 스피치가 끝나면 잘 못한 점들이 아쉬워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하기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게든 여러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피하려던 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직도 수업시간마다 선생님과 학우들의 지적을 받으면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 수업을 통해 꾸준히 고쳐나가고 있고 이번 학기가 끝난 후에는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